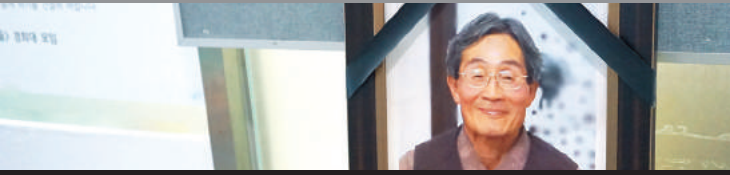


3» 김영란 법과 취업계 문제



8» 백남기 농민 추모제



2016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 서류제출기간 : 11월 1일 ~ 11월 24일
- 사회봉사 관련 상세사항은
공식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일반] 에서 반드시 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내부 구성원 대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28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김영란법 교직원 대상 교육 장면이다 (사진=기호용 기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초미의 관심 교육부 능장 '지침' ... 관련 학생 혼란

김영란법, 대학은?

권유진 기자 hahay123@khu.ac.kr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대학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생들의 '취업계' 즉,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인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22일에 배포한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에서 조기 취업으로 강의를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학점을 인정해주던 취업계 관행이 '학점 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해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후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향의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법 시행 이틀 전에서야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생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응방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너무 늦게 하달하는 바람에 대안을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들은 '자율적인 학칙 개정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부에서 대안 마련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모두 전가했다'며 각종 취업계 관련 대안을 만드느라 고심하고 있다.

가장 많은 대학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출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칙에서는 기준일수 이상 결석할 경우 F학점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질병이나 군대 등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취업계를 추가

한다는 것이다.

한편, 취업계를 예외조항으로 두는 것이 취업예정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어 이 대안이 모든 대학에게 적용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대안, 이를테면 취업예정자의 경우 잔여 강의를 사이버 강의 형태로 수강하게 하거나 매주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당장 이것도 적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모두 당장의 혼란을 잠시 잠재울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학교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른 학교에 비해 더 복잡한 상황이다. 애초에 취업계는 이 제도로 규정

된 바가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명문화된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 이번 학기 들어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취업예정자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사지원과에서는 "학칙은 하루 이틀만에 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조기취업과 관련되어 개정이 된다면 2017년도에나 이뤄질 것"이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학기 취업계를 써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당장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학사지원과 측은 "6주 이상 결석하면 낙제가 되므로, 개강 후 6주가 지나기 전인 오는 10월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수상자
김희현(무용학 2013)



“몸이 허락할 때까지 발레하고 싶다”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제13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발레부문에서 김희현(무용학부, 2013)양이 '2등 없는 동상'을 수상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14개국 329명의 무용수가 참가하는 대회로써 13년의 짧은 역사에도 그간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본 콩쿠르는 2005년에는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CID-UNESCO)에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우아한 손끝, 아슬아슬한 발끝 마치 한 마리의 백조를 연상케 하는 동작들의 향연. 발레는 오랜 기간 서양에서부터 사랑받아온 예술이다. 이번 대회에서 김희현(무용학 2013) 양이 '2등 없는 동상'을 받은 이유는 1등이 커플이었기 때문이다.

여자 발레부문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출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남자와 같이하는 커플 부문, 나머지는 솔로 부문이다. 이번 대회에서 커플 부문은 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어 작품을 선보였던 반면, 솔로 부문은 짧은 1~2분의 작품을 4개 선보였다.

하지만 수상은 부문별 구분 없이 이뤄졌다. '2등 없는 동상'이지만 사실상 솔로 부문에서는 1위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테크닉 위주로 구성된 솔로 부문보다 단일 작품의 길이가 길고 춤에 서사가 깃든 커플 부문에서 수상작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김 양은 6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 지금까지 줄곧 발레에 몸담아

왔다. 발레를 처음 시작할 땐 단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다는 그녀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격려, 그리고 무대를 즐기는 '맛'으로 지금까지 계속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발레는 몸의 아름다움이 중요한데,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속상했죠."

이번 대회는 유난히 그에게 고된 여정이었다. 2라운드 직전 탈수와 장염이 동시에 오는 바람에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이튿날 곧바로 무대 위에 서야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그래도 잘 끝났어 다행"이라며 웃는다.

이번 대회를 마친 소감을 묻자, 그는 체력과 정신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열 명이 한 작품씩 돌아가며 총 세 곡씩을 선보여야 했어요. 한 곡 당 1~2분짜리인지라 숨찬 채 내려와서 숨찬 채 올라가는 벅찬 사이클이었죠.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발레계에서 꽃을 피우려 하고 있는 그에게 더 큰 꿈이 있다. '몸이 말을 들을 때까지 발레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어 춤을 추다가 안무가 겸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발레가 대중과의 소통이 미흡한 게 아쉬워요. 그 때문에 장래 한국발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김 양은 이번 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우크라이나 국립오페라단 'Swan Lake' 공연에 초청됐다. 오는 10월 중순에 출국해 해당 공연의 주연인 흑조 또는 백조 역으로 우크라이나 국립오페라단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알림

사령

(영)

기호용 의류디자인학(2012) 국제 뉴스총괄팀장
이정민 스페인어학(2014) 국제 영상총괄팀장
민성원 국제학(2014) 서울 영상총괄팀장

(영) 정기자

- ▲고등군 골프산업학과(2013)
- ▲김성수 컴퓨터공학과(2016)
- ▲김은수 프랑스어학과(2015)
- ▲김태윤 연극영화학과(2016)
- ▲이성은 응용물리학과(2015)
- ▲홍지수 도예학과(2015)
- ▲정현진 영어학과(2015)
- ▲임창민 언론정보학과(2014)
- ▲송현우 언론정보학과(2016)
- ▲박수현 언론정보학과(2015)
- ▲이예린 경영학과(2015)
- ▲권유진 사회학과(2014)
- ▲김태희 컴퓨터공학과(2015)
- ▲설지연 프랑스어학과(2015)
- ▲김태윤 일본어학과(2015)
- ▲경소정 한방재료공학과(2015)
- ▲김가영 도예학과(2016)
- ▲임채원 경제학과(2016)
- ▲양윤주 언론정보학과(2016)
- ▲박지영 언론정보학과(2016)
- ▲주현용 지리학과(2015)
- ▲장소영 호텔경영학과(2016)
- ▲고나원 경영학과(2016)

교육실천 혁신위, '수강인원 제한 없는 신청' 제안

수강신청 대란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김은수 기자 eunsu1031@khu.ac.kr

#. 수강신청 시작 후 30초에 한 학기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수강신청 '올클'을 꿈꾸지만 달콤한 상상에 그쳐버린곤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수강신청제도 변경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올클: 'All-Clear'의 준말)

우리학교의 현행 수강신청 제도는 수차례 변화를 거쳐 왔다. 우리 학교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수강신청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도 2학기부터다. 이전까지는 수강신청 양식을 직접 작성해 학사지원과에 제출해왔다. 이후 학수번호 직접 입력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의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도 1학기부터 희망과목담기 서비스가 종학생회의 요구로 시행됐다.

조기 도입된 희망과목담기 제도는 답을 수 있는 과목 수에 제한이 없어 정확한 과목별 수요 파악이

어려웠다. 이후 답을 수 있는 과목수가 10과목으로 제한된 '예비과목담기'가 생기면서 희망과목담기는 본인이 수강 가능한 학점 내에서만 답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측은 희망과목담기를 통해 예비 수강인원을 파악하고 강의의 수요에 따라 추가개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강의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희망과목담기로 수강신청이 편리함을 더한 것은 사실이지

만 근본적으로 수강 가능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이상 치열한 경쟁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외국어대학 학생회 김주와(중국어학 2015)부회장 역시 "희망과목담기를 통해 수강가능인원 증설이 이루어지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희망과목담기는 장바구니 역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다"고 9월 2일 교육실천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5면으로 이어짐

시선

사설

김영란법, ‘나쁜관행’을 직면하는 계기로 삼아야

부탁과 청탁의 경계는 어느 지점인가. 지난 달 28일 첫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파져 묻고 있는 질문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정언을 상기할 때, 청렴을 제도화 한 이 법의 존재는 거꾸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청렴하지 못한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실제로 지난 1일 세계경제포럼(WEF)은 매해 발간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아홉 번째로 부패한 나라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2012년 경 이 법안이 최초 추진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법은 대학의 일상과는 큰 상관이 없는 법으로 여겨졌다. 기껏해야 일부 부정한 사학재단 관계자 정도가 저촉될 뿐, 대부분의 일반 대학 구성원은 부정이나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첫 날 경찰에 접수된 신고 1호가 ‘캔 커피를 받은 교수’였듯, 대학사회는 이미 이 법안에 예기치 못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행위는 대개 ‘관행’의 이름으로 지탱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같은 ‘사회 규범’에 속하는 관습의 일부를 법이 강제하며 벌어지는 혼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조문은 있되 관례는 없는 모호한 상황이 관습에서 법을 분리해내는 메스의 날을 무디게 하는 탓도 크지만, 더 엄격한 강제규범인 법이 그간 관행이라 여겨져 온 습관들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학 구성원의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하겠다.

그래서 대학 측은 적절한 법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과 29일에 양 캠퍼스 교직원에게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달 27일에는 김영란법 법률 관련 대학 질의응답 사례 모음을 부서메일로 발송하며 잘못된 ‘관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이란 대체로 상급자의 요구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하급자의 반 자발적 수용에 의해 암묵적 환경에서 대물림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내 권력관계에서 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 면밀한 교육에 나서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비위(非違)에 대한 예방은 어느 일방이 아닌 카운터 파트 양측에 대한 실제적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상술했듯, 김영란법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신생 법안이다. 적어도 유의미한 분량의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많은 혼란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 우리학교 공동체에 도입한다면, 김영란법의 시행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야 하던 행위들 - 예컨대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수 접대 행위, 혹은 대학원 논문심사 시 학생과 교수 간에 오고가던 각종 거마비와 금품, 식사제공 등의 암묵적 행위들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탁과 청탁의 경계는 어느 지점인가. 이 물음은, 김영란법의 도입으로 혼란해진 캠퍼스가 반드시 자문해야 할 질문이 됐다. 우리 안의 인지되지 못했던, 또는 자정되지 못했던 ‘나쁜 관행’을 직면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지금 당장 혼란을 주고 있는 이 법이 그리 나쁠 것만도 없지 않겠는가.

체대 폭행사건 발생

어떤 식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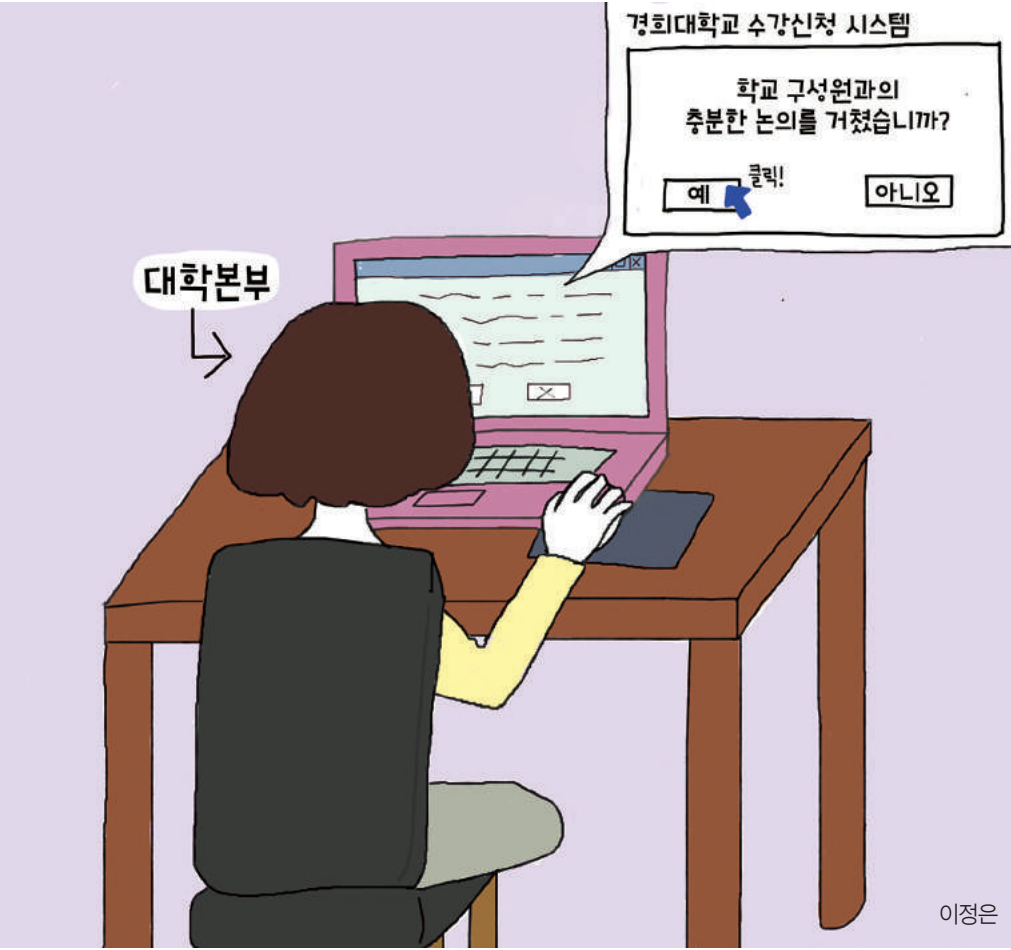
폭행은 용납 안돼

미디어 여론동향 2016. 9. 20 ~ 9. 30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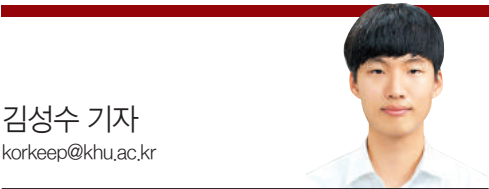
지난달 22일 서울캠 오비스홀 대회의실에서 UN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한 ‘제4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이 개최됐다. (‘제 4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개최/대학주보 온라인, 2016.9.23) 이번 행사는 지정 도서에 대한 서평과 에세이를 쓰게 했던 기존 행사와는 다르게 ‘평화’를 주제로 자유에세이, 시, 패러디 시 등의 부문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과 연극으로 마무리됐다. 총 18명의 수상자 중 대상에 안병훈(영어학) 군, 최우수상에 김다연(경영학)

만평



이 주의 주제 - 수강신청 제도 변경

말뿐인 소통, ‘형식적’ 회의에 학생은 없었다



수강신청은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 한 학기의 중간과 끝을 좌우한다. 이렇듯 수강신청은 한 학기 학생들의 배움과 직결되는 무거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수강신청제도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장 이번 2학기의 경우만 해도 경영대학 행정실에서 사전공지 없이 4학년에게 전공과목 정원을 우선 배정해 경영대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 9월 2일 수강신청제도 개선에 관한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는 부푼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존의 수강신청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강의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였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회의시간은 1시간 30분, 구성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수강신청제도의 혁신을 원한다면 학교의 목표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이날 회의는 ‘수강신청 제도개선’이란 안전판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이외의 4가지 논의와 함께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총회의시간 1시간 30분 중 30분은 이번 회의를 설명하는데 소요됐다. 부족한 시간 탓에 회의는 결할

기식으로 진행됐고, 당연히 학교가 바라던 소통을 통한 혁신은 부재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의 막바지에서 사회자는 시간이 다 됐으며 자유발언을 자르기에 급급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에게 남은 것은 ‘형식적’이라는 느낌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개선안은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수강인원 제한 없는 수강신청 후 강의 수조절 단계에서 신청 인원이 적은 강좌는 폐강되고, 이외의 강좌에서 담당 교수가 수용 가능한 최대 강의 인원과 강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곧 수요 없는 강의의 폐강으로 이어진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치게 된다. 심지어 담당 교수가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수용가능 범위 밖의 학생들은 결국 다른 수업을 선택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수강신청 대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학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에 있다. 이번 개선안은 말그대로 시안(試案)일 뿐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 구성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보완하면 된다. 우리학교는 과거 프라임 사업에서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이 실수를 밑거름으로 하여 대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밑어붙일 테니 믿고 따라와 달라”는 식의 발상은 너무 구시대적이다. 우리학교는 대학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걸림돌’이 아닌, 문제 해결의 ‘디딤돌’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양이 선정됐다.

지난달 22일 제 15회 의류디자인학과 졸업패션쇼가 열렸다.(의류디자인학과 졸업작품패션쇼 성황리에 열려/대학주보 온라인, 2016.9.29) 졸업을 앞둔 의류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 46명은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서 모티브를 얻은 ‘향기(Fragrance)’를 주제로 115여 벌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대상은 이진아(의류디자인학 2013) 양이 수상했다.

기계공학과 ‘KHARS(경희자동차연구회)’ 학생들이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경희자동차연구회 KHARS,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수상/대학주보 온라인, 2016.9.29) 한국 자동차공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0개 대학에서 174개 팀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대학생들이 자동차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진행하는 대회에서 KHARS는 오프로드, 온로드 부문에서 장려상을 거뒀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체대와 관련한 제보가 짧은 시간에 큰 반향을 얻었다. ‘학교를 달리는 단체운동 중 이탈한 학생에게 학생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경희숲_16608, 2016.9.25)은 785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글쓴이는 ‘폭력은 포장 없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주먹이 앞서는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아직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이 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또 조용히 넘어갈 일이었다, 대단하다’, ‘무엇이든 간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출퇴는 잘못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학점으로 받으면 되지 왜 때리는 거냐’, ‘다수가 폭력을 방조하는 현 상태는 당신들 스스로가 규율 있는 체육인이길 포기했다는 증거다’ 등의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27일 경희의료원에서 ‘후마니타스 암병원 착공식’이 열렸다.(경희대 ‘후마니타스 암병원’ 착공/의학신문, 2016.9.27) 임영진 경희의료원장은 후마니타스 암병원을 통해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개인별 전담 의료 서비스와 학제 간 복합연계, 감성 케어 등의 특징을 갖출 예정이다. 조인원 총장은 축하사에서 “세계에서 유래 없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전한 학내 부조리

이제는 문제를 직시해야

세시봉

이정민 <국제 영상총괄팀장>



9월 26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체육대학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제보가 올라왔다. 체육대학 A 학과의 전체 공지 시간에 학생장이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는 제보였다. 지난 달에는 외국어대학 B학과 학생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다. 글에는 “적당히 해라 어린 것들아... 나도 선배들 00백 만큼 빨고 이 자리에 있는거야”라는 대목이 문제적 장면이었다. 당연한 반응이지만 해당 학과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SNS에 폭행이 제보되고, ‘선배’의 글에 논란이 벌어지는 일은 이제 이상하지 않다. 이미 강압적인 사발식과 기수제로 상징되는 이른바 ‘군대문화’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와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문제의식 없이 쉬쉬하다가 결국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숨겨져 있던 ‘관행’이 일단 그 모습을 드러내면 문제는 건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

기자는 지난해 3월, ‘OT비 결산안 공개여부’를 취재했다. 체육대학은 OT비 결산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학생들은 OT비용이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책정됐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체육대학 학생회 측은 ‘OT비는 내부에서 정하는 일이며 관습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상황은 달라졌다. 올해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졌고 이번에는 주류 매체까지 의혹을 보도했다. 학생회는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뒤이어 사과를 했으며, ‘관습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산안과 영수증까지 공개했다.

그들은 마치 위기 속 타조와 같다

현실에서 외면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뜨거운 감자’들을 취재하다 보면 늘 한결같은 반응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왜 논란을 가중시키냐’, ‘별거 아닌 일을 왜 더 키우냐’며 오히려 화를 낸다. 종종 기사를 쓰지 말라는 말도 듣게 된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 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마치 위기 상황의 타조와 같다.

타조는 위기를 느끼면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다.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게 되면 타조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다가오면 위기도 보이지 않게 된다. 타조는 위기를 벗어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머리를 처박고 있으면 박제처럼 멈춰있을 수밖에 없고 금방 사냥당하고 만다. 장두노미(藏頭露尾)다. 머리를 땅에 처박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제논만 가리면 무얼 하겠는가. 대중들의 눈이 있는데.

코앞의 상황만을 도피하려는 모면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다. 사람들이 질책할 수도 있고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를 덮어두어 발생할 더 큰 문제보다 낫다. 잘못된 게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대안을 내고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자. 도피하기 보단 부딪치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레기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1면에서 이어짐

실제로 대학기 수강신청기간에는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담당 교수 주위로 모여 수강가능 인원을 늘려 주심사·'별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되곤 한다. 김상민(응용화학 2016) 군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넣지 못한 '미분적분학'을 수강하기 위해 직접 교수님을 찾아가 부탁드렸다. 김군은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수강인원 추가를 부탁드린 후 단과대 행정실로 가서 추가로 신청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리 학생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 방법까지도 실패한 학생들의 경우 '수강신청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는 결국 '온라인 강의매매'란 폐단으로까지 손을 뻗게 한다.

시간표 및 정보 공유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사요'와 '팔아요'라는 키워드로 강의매매관련 게시물을 검색한 결과, 2학기 수강신청이 실시된 8월 2일부터 정정기간 마감일인 9월 7일까지 30여 건 이상이 게시됐다. 이는 이전부터 지속됐은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학주요제1594호 6면) <대학주요 제1603호 6면> 나현호(기계공학 216) 군은 “강의 판매를 위해 수강신청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면서도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강의를 구매하게 되는 입장이 한편으로는 이해된다”고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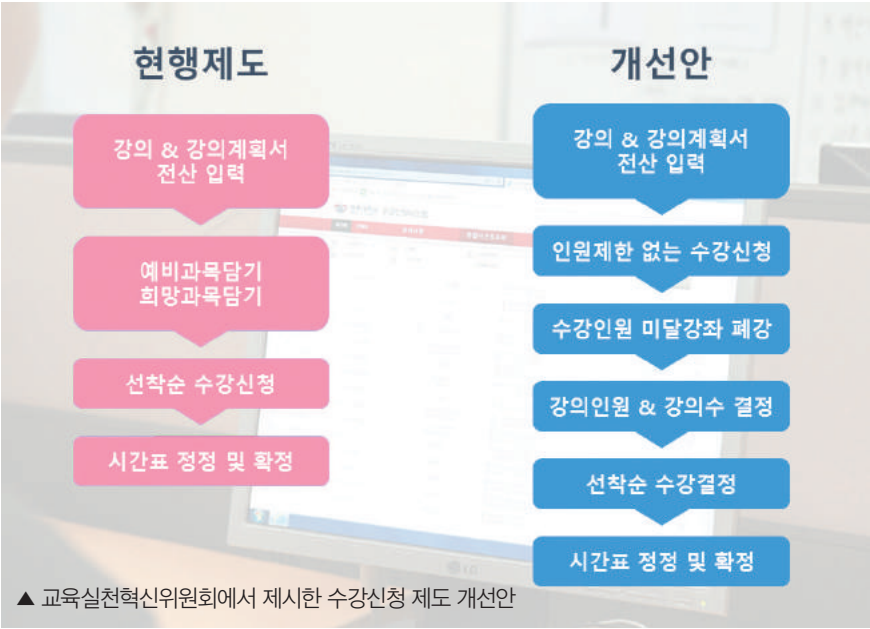
수강신청 제도변경 관련 회의 열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 학교 측에서는 다시 수강신청 방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우리학교 교육실천혁신위원회에서는 수강신청 방법 변경에 관한 안건이 언급됐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수감신청 방법 개선안은 ▲학과별 개설 강좌 및 강의계획서 전산 입력 ▲수감신청 ▲개설 강의 수 조절 ▲수감신청 변경 및 확정 과정이다. 개선안에서 현행 제도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희망과목담기가 사라지고, 전공선택과 교양과목에서 수감인원 제한 없이 수감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강신청 후 강의 수 조절 단계에서 신청 인원이 적은 강좌는 폐강되고, 이외의 강좌에서 담당 교수가 수용 가능한 최대 강의 인원과 강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

담당교수가 수강신청한 학생을 모두 담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과 같이 선착순으로 수강 여부가 결정된다. 수강신청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조영욱(의예과)교수는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최대한 개설해



주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목표"라며 "수강신청에 관한 학생들의 근본적인 불만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수의 강의인원 수용여부가 현실화
 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강신청이 이루어
 진다면 무분별한 수강신청이 될 가능성과
 담당교수가 신청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
 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현행 제도의 경우
 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중국어학과 김 부회장은 “단지 희망과 목
담기와 수강신청 인원 제한을 없애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며 “개선안처럼 시행
된다면 수강에 실패한 학생들은 수강신청
‘플랜B’조차 건지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수강인원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 강의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준영(작곡과)교수는 “예술, 체육 등

소수인원 대상 강좌의 경우 인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조정이 필요하다”며 “학과별로 특수 사항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 대학의 수강신청 제도

마일리지 선택제(연세대학교): 과목 중요도에 따라 마일리지 배분 가능

연세대학교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마일리지 선택제’를 시행 중에 있다. ‘마일리지 선택제’는 ▲수강가능학점의 4배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부여 ▲신칭탈 과목의 경우 요도에 따라 마일리지 배분 ▲각 과목별 배분된 마일리지 포인트에 따른 수강여부 결정의 순서로 이어진다. 마일리지 선택제는 현재 2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이승윤(국어국문학 2016) 군은 “내년부터 손이 떨어 수강신청을 망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꼭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은 *맥스-마일리지를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등 마일리지 선택제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맥스-마일리지: 한 과목에 배분할 수 있는 최대 마일리지. 맥스-마일리지를 투자했다고 해도 맥스-마일리지를 투자한 학생들이 수강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 모두가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강우선순위제도(숙명여자대학교): '선착순'
이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

숙명여자대학교는 '수강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교양과목은 학년(4학년-1학년-3학년-2학년)→직전학기 이수학점→성적순 ▲전공과목은 제1전공과→복수전공(동일 조건에서는 교양과목에서의 조건을 따름) 순서로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수강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우선순위에 따른 수강여부가 결정된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타 학교와 달리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효율적이고 여유롭게 할 수 있다”며 “수강신청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수강바구니제도(건국대학교): 사전 신청을 통한 효율적인 수강신청

건국대학교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바구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학교의 희망과목답기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강바구니제도는 담은 과목의 인원이 수강인원보다 적을 경우 해당 과목이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건국대학교 박시형(전자공학부 2016) 군은 “수강바구니제도를 통해 미리 수강신청이 된 과목들이 있어 수강신청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며 “시간표를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상황은?

수강신청 대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

앞서 제시된 우리학교의 수강신청 방법 개선안은 현재로서 확정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캠퍼스 학사지원과 김경희 과장은 지난 회의에서 “수강신청과 같은 중요한 시안은 더 많은 학생들과 직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오려면 보다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수차례 수강신청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대한 부담과 함께 개강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강신청 관련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수강 인원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피상적인 접근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방관할 수는 없다.

현행 수경신청 제도의 맹점을 명확히 파악해 학생들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961-0081~2

http://www.iie.ac.kr

● 등록기간

장규 등록기간 : 영어/제 2외국어 : 2016.10.10(월) ~ 2016.10.28(금)

추가 등록기간 : 영어 : 2016.10.31(월) ~ 2016.11.11(금)

제 2외국어 : 2016.10.31(월) ~ 2016.11.04(금)

● 강의시간표

● 강의기간 : 장규 외국어강좌(6주) : 2016.10.31(월) ~ 12.09(금)

● 레벨테스트

영어회화 : 10.26(수), 10.27(목) 17:30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10.26(수) 17:15

테스트 후 반 배정 : 2016.10.28(금) 저녁 6시 이후 www.iie.ac.kr에서 확인!

● Registration

English : Oct 10th (Mon) – Nov 11th (Fri)

Foreign language : Oct 10th (Mon) – Nov 04th (Fri)

Official date : Oct 31nd (Mon) – Dec 09th (Fri)

● Level Test into Operation

English : Oct 26th (Wed), 27th (Thu) at 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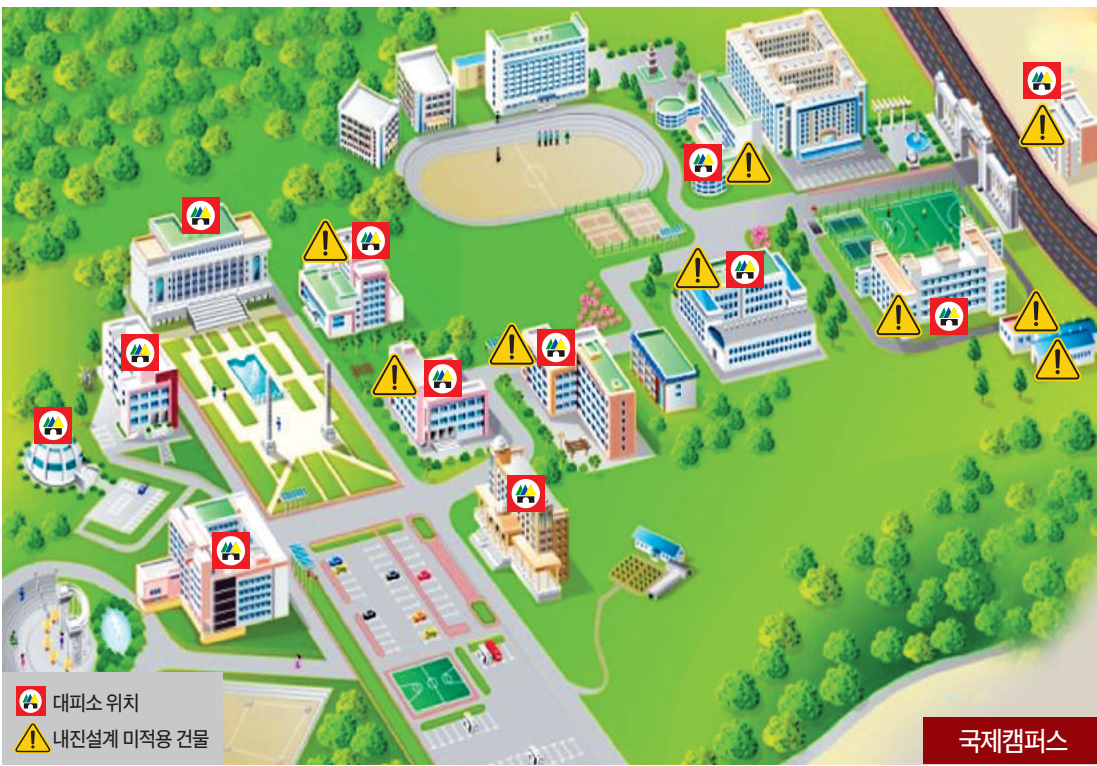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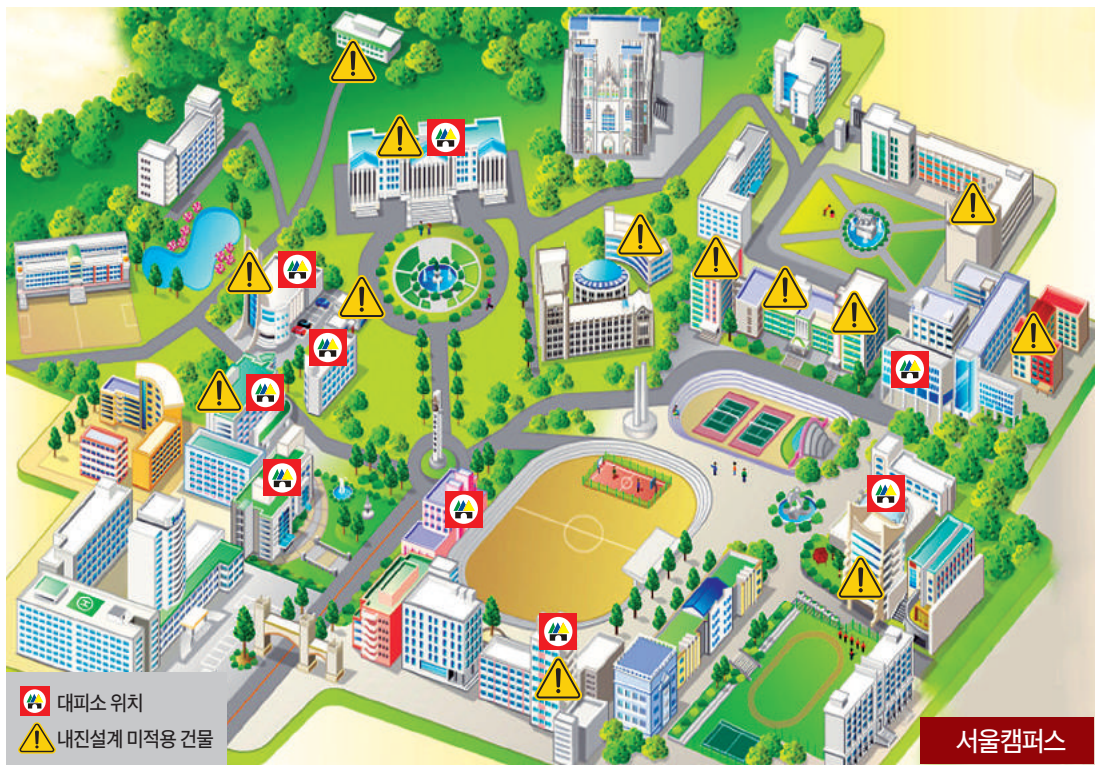
Japanese, Chinese, Spanish : Oct 26th (Wed) at 17:15

Confirmation : Oct 28th (Fri) after 18:00 at www.iie.ac.kr

	7:45~8:45	9:00~10:20	10:20~11:00	16:00~16:30	16:30~17:00	17:00~17:30	17:30~17:50	18:00~18:30	18:30~18:50	18:50~19:00	19:00~19:20	19:20~19:30	19:30~19:50	19:50~20:00	20:00~20:20	20:00~20:50
월	영어								영어							
	Ted Talk(중급)								일본어(초급/고급)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초급1)							프랑스어(초급3-A)							
						프랑스어(초급1)			베트남어(초급1)							
화	스페인어(초급2)				스페인어 Book Club				스페인어(초급2)				스페인어(중급1)			
	영어															
	Ted Talk(중급)															
	일본어								일본어(초급2/중급1/중급2)							
	중국어								중국어							
수									프랑스어(초급3-B)							
									베트남어(초급2)							
								독일어(초급1)					독일어(초급3)			
									Ted Talk(중급)/Book Club(중급)							
									Academic Writing(중급)							
목	스페인어(초급1)					스페인어 Video-Debate			스페인어(초급1)				스페인어(중급2)			
	영어								영어							
	Ted Talk(중급)								일본어(초급/고급)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초급1)							프랑스어(초급3-A)							
금									베트남어(초급1)							
									독일어문법							
									이탈리아어(초급1)							
	스페인어(초급2)								Ted Talk(초급)				스페인어(중급1)			
	영어								영어							
토	Ted Talk(중급)								일본어(초급2/중급1/중급2)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	배성중국어							프랑스어(초급3-B)							
									베트남어(초급2)							
									독일어(초급1)							
일	스페인어(초급1)					스페인어 Video-Debate			스페인어(초급1)				독일어(초급3)		스페인어(중급2)	
		배성중국어							독일어문법							

보도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 중 안전등급 C이하 10개



지진 안전, 우리학교는?

최병헌 기자 chbht027@khu.ac.kr

#. 지난달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도 430회 이상 함께 동반돼 한반도에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지진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시설물 안전과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우리학교는 지진 안전지대일까. 우리학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안전등급 그리고 지반을 분석해봤다.

우리학교 내진설계 시공률은 서울캠퍼스(서울캠) 50%, 국제캠퍼스(국제캠) 71.4%다. 서울캠은 내진설계 보강도 이루어졌는데, 이를 더하면 서울캠 내진설계 시공·보강률은 63.9%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도에 도입됐다. 당시 의무적용 대상은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로 미국의 Applied Technology Council(ATC) 3-06기준을 적용해 진도 7.0 이상에서 건물의 안전을 목표로 했다. 2000년에는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후 2015년에는 3층 이상,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서울캠 36개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은 ▲제1의약관 ▲호텔관광대학신관 ▲국제교육원 ▲신문방송국 ▲

공관 ▲본관 ▲학생회관 ▲문과대학관 ▲이과대서관 ▲이과대동관 ▲교수회관 ▲한의학대학관 ▲삼의원 기숙사로 총 13곳이다. 국제캠은 35개 건축물 중 ▲애지원(백관, 송관) ▲애지원(고시동) ▲공학관 ▲공대실협동 ▲원자력실험실 ▲체육대학관 ▲외국어대학관 ▲생명과학대학관 ▲국제경영대학관 ▲학생회관으로 총 10곳이다. 해당 건축물들은 준공 당시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없었거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건물 안전 등급 낮을 수록

지진에 취약

건물의 낮은 안전등급도 지진 위험요소다. 건물 안전등급은 진단을 통해 안전도가 높은 순으로 A부터 E등급까지 매겨진다. A등급은 ‘우수’로 건축물에 문제가 없을 때 부여되고, B등급인 ‘양호’는 건물에 경미한 손상이 발견된 상태를 말한다. C등급 이하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보통’을 뜻하는 C등급은 조속한 보강이나 일부 시설 대체가 필요하며, D-E등급은 ‘미흡’과 ‘불량’으로 긴급한 보수나 건물 사용제한 조치가 요구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다행히 우리학교에 D-E등급 건축물은 없지만, C등급을 부여받은 건축물은 상당수였다. 서울캠 ▲제1의약관 ▲미술대학관 ▲국제교육원 ▲중앙도서관 ▲음악대학관 ▲학생회관 ▲정경대학관 ▲문과대학관 ▲이과대서관 ▲이과대동관 ▲

교수회관 ▲한의과대학관, 국제캠 ▲애지원(백관, 송관) ▲실습용온실 ▲생명과학대학관 ▲지하주차장이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낮은 건물 안전등급과 내진설계 미적용이 겹치는 경우다. 시설물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C등급이하 건축물에서 내진 시공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건축물은 지진에 더욱 취약해진다.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서울캠 ▲제1의약관 ▲국제교육원 ▲학생회관 ▲문과대학관 ▲이과대서관 ▲이과대동관 ▲교수회관 ▲한의과대학관이며, 국제캠은 ▲애지원(백관, 송관) ▲생명과학대학관이다. 서울캠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로 인해, 국제캠에 비해 내진설계 시공률이 낮고, C등급 이하의 건축물도 많았다. 홍원기(건축공학) 교수는 “건물 안전등급이 낮을수록 지진에 취약한 건 사실이지만 건축물 붕괴 가능성 자체는 낮다”면서 “지진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나 지진의 규모 등 건물 실정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남기는 건물 붕괴 이외에도 건물 전도나 산사태, 화재, 라이프라인* 단절로 인한 도시기능 마비 등이 주요 지진 피해로 꼽힌다. 건물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설치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벼운 현상도 지진에 따른 피해 중 하나다.

만약 우리학교에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

는 어느 정도일까. 국민안전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을 지나는 남북단층이 있는 서울캠 동쪽 중랑교를 진앙으로 설정하고 진도 규모 6.0의 지진 피해를 예측해 봤을 때, 서울시민 1,43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엔 사망자는 12,778명으로 예측됐다. 여기서 ‘진도’는 지진파로 인해 발생한 총 에너지의 크기를 말한다. 진도 규모 1.0부터 3.0까지는 극소수의 민감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으며, 규모 3.0부터 5.0까지는 대부분 사람이 지진을 느끼고 고정이 안 된 물체가 넘어지는 정도다. 규모 5.0부터 5.9까지는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고, 규모 6.0 이상은 건물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규모가 7.0을 넘어가면 대부분의 건축물이 무너진다.

충적층 지반 국제캠

비교적 지진에 취약

지진피해를 가능하게 하는 데는 지반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캠 지반은 화강암, 국제캠 지반은 편마암, 충적층, 수류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우정원, 멀티미디어교육관, 중앙도서관이 위치한 서쪽은 편마암 지반이고, 그 이외에 공학관, 체육대학관, 사색의 광장 동쪽으로는 신갈저수지가 인접해 충적층, 수류지역이다. 일반적으로 화강암과 편마암은 강한 암석층

으로 분류된다.

반면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충적층과 수류지역은 비교적 무른 지반층이다. 지반에 따른 지진 안전도에 대해 윤순옥(지리학) 교수는 “지진파는 속도가 느릴수록 진폭이 크고 파괴력이 크다”며 “강한 암석층은 지진파가 빠른 속도로 통과하기 때문에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적층은 암석층보다 지진파가 느리게 통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충적층이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지진이 발생하면, 토양층이 액체처럼 변하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반이 암석층으로만 이뤄진 서울캠과 달리 충적층이 포함된 지반 위에 있는 국제캠은 지질학 관점에서 지진에 비교적 취약한 것이다.

한편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자연재난 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기본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테이블(책상) 밑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전기·가스 불을 꺼서 화재를 예방하고, 문틀이 손상돼 건물 안에 갇힐 수 있기에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진동이 멈추면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공원, 운동장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하고,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주변 지진대피소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시설, 교통 시설, 통신 시설, 공급 처리 시설 등이 포함된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는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입법취지 살려 청정 대한민국 길 열어야

김영란법 시행

정완
법과대학 교수



입법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대립이 심했고 급기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까지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마침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4개조로 구성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열네 가지 유형의 부정청탁행위 금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무조건적 금지, 관련사실의 신고의무,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김영란법 실시는 종래 암묵적으로 행해오던 우리 생활 속의 부정부패 습관에 제동을 거는 가치 혁명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은 오로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할 뿐이고, 민간인들 사이의 행위에는 제약을 주지 않는다. 다만, 공직자 등의 범위에 공무원 이외에 언론인과 교직자를 포함시켜 수범자의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위헌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부정부패란 주로 국가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법행위로서 각국은 이를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뇌물죄 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볼 수밖에 없어 과거에 적발된 각종 뇌물사건에서의 판결은 종종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왔다.

김영란법 실시로 찾아볼 수 없는 현상들이 이어져

우리나라는 부패지수가 높은 편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를 비판하고 헬조선이라며 자조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김영란법이 실시되면서 공직자에 대한 적은 액수의 금



품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됐고 많은 국민들이 긴장하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법 실시에 즈음하여 관청부근의 식당과 주점에 공직자들을 대동한 민간인의 발길이 뚝 끊겼고 백화점이나 상점의 선물세트가 잘 팔리지 않는 등 종래에는 찾아볼 수 없던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더치페이를 하는 등 불필요한 식비지출을 삼가고 뇌물로의 의심될 수 있는 선물을 일체 수령하지 않는 등 매우 바람직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첫날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한 개를 건넨 것이 법 위반으로 신고된 일은 매우 충격적이다.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싶어도 ‘이거 괜찮을까?’라며 자문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식변화 자체가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혁명적 바람이 불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김영란법의 수범대상자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숫자가 상당하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4백여만 명으로 숫자가 늘어나며 여기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포함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도 일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예측은

허구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적은 수의 공무원들과 교직자 및 언론인을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사회적 혁명을 가져오기에는 매우 못 미치는 적은 범위에서 적용될 뿐이다.

생각을 바꾸는 김영란법 실시, 꾸준한 개선도 필요해

김영란법의 실시는 과거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로 일처리를 해오던 부류의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고 신경쓰이게 만들었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간절히 바라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속 시원함과 행복을 제공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법의 실시로 대다수 기업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나아가 철저히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오로지 경쟁력만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정내용이 매우 불분명하고 미흡하거나 법위반 공직자 등에 대한 제재에 있어 형평이 맞지 않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만을 지나치게 지적하며 법의 실효성

을 부정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꾸준히 개선하여 나가면 될 것이고 불분명한 규정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 축적을 통하여 점차 해결해 나가면 된다. 아울러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금지하면서도, 반대로 공직자가 행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허용하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신속히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입법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없는 진정한 청정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추후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더욱 넓혀 언론·사학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한 금융계·법조계·의료계와 대기업, 시민단체 등도 모두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전체의 윤리기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정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만일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법위반 적발건수가 매우 미흡하거나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 법을 경시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참여마당

안명진(사회학 2014)

경희대 독립언론 준비모임 <경희현제리포트> 편집위원



백남기, 폴리스라인, 후마니타스

백남기는 1947년생의 농민이었다. 20대엔 중앙대학교에 입학했고, 당시의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그랬듯 치열하게 시대와 대결했다. 역시나 정권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고, 제적과 투옥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민주주의는 시대가 설치한 폴리스라인 너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남기가 또 한 번 폴리스라인을 넘어야 했던 이유는 농민들의 생존과 존엄 때문이었다. 몇 십 년 전까지 ‘농자천하지대본’을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삼던 나라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온 나라가 농민들을 수탈하는데 공모하였다. 이 나라는 맨 처음,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강제로 쌀값을 하향 조정했다. “조국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을까. 이어진 “구국의 결단”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와 FTA였다.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국’과 ‘경제성장’의 목적에는 언제나 농민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남기는, 농민이 국가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인간의 가치 탐색)에서 배웠던 “모든 인간이 목적으로서 대우받는” 황금률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폴리스라인을 넘어야만 했던 것이다. 칸트는 말했지만, 백남기는 실천하였다. 우연찮게도 백남기의 세례명은 ‘임마누엘’이었다.

“그깟 선 하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으로 넘었던 폴리스라인은 광화문 근처의 차벽 앞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2012년 겨울, 지금의 대통령은 선거에 즈음해 농민들을 위해 쌀 수매가를 현실화 하겠다고 공약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에게 공보물에 적힌 몇 개의 글자들일 뿐이었지만, 백남기와 농민들에게는 단순한 약속 그 이상이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회는 그가 그토록 바라던 사회, “농민도 목적으로 대우받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백남기가 마주했던 그 날의 폴리스라인 저편에는, 모두가 아는 상식과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최소한이 놓여 있던 셈이다. 그래서 그날도 백남기는 폴리스라인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온 삶을 통하여 지켜온 하나의 단순한 신념 때문이었다. “그깟 선 하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하지만 백남기는 죽었다.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다. 너무나 쉽게 사람을 죽이는 정권이어서, 슬픔 겨를도 없이 싸울 재비를 마쳤다. 백남기의 죽음 앞에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백남기가 “더 나은 인간, 후마니타스”이기 때문이다. 이윤보다 인간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 이가 후마니타스가 아니라면 후마니타스는 누구인가. 정권이 멋대로 그은 선 하나에 정의와 평등, 존엄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인문주의인가.

백남기가 후마니타스다. 백남기가 인문학이다. 한 평생 반-인간적인 시대와 치열하게 불화했던 백남기가 후마니타스다. 백남기의 죽음이 묻는다. 강의실에서 인문주의를 암기할 것인가, 캠퍼스 밖에서 인문주의자일 것인가. 확신하건대, 후마니타스는 폴리스라인을 넘은 사람이다. ‘그깟 선 하나에 존엄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백남기의 이름으로, 거리에서 우리는 인문주의자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문화



9월 28일 경찰의 부검 강제 집행을 우려한 대학생들이 영안실 앞 주차장 입구에서 고인의 시신을 지키고 있다

망자의 빈소 곁은 생의 가장 짙은 내음으로 가득하다

故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지난 달 25일 끝내 숨졌다. 이후 발포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인이 확실해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유가족의 입장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기사는 지난 달 27일 밤부터 29일 아침까지 장례식장을 지키는 데 동참했던 우리학교 학생 약 스무 명을 밀착 취재하여 그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이다.

9월 27일 오후 여섯 시. 종욱은 수업을 마치고 청운관을 나서다가 사람들 손에 하나씩 들린 하얀 종이꽃을 보았다. 청운관 앞 마당에 좌판을 편 플리마켓에서 디퓨저를 파는 학생들이 행인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시향 종이꽃이었다.

“향기 맡아보고 가세요.”

꽃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는 사람들을 보며, 종욱은 이를 전 말았던 열은 국화꽃 향기가 떠올랐다. 문득 한기를 느낀 종욱은 카디건을 여민다. 수업을 같이 들은 수민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너 잠이 부족해서 추운가보다. 오늘은 집회 가지마.”

아니야. 이제 바람이 정말 찬데 뭘. 잠은 무슨. 종욱은 대수롭잖게 대답하며 핸드폰을 켜다. 검경이 부검영장을 보완하여 제출했다는 속보가 떴이었다. 급박한 손길로 들어간 ‘백남기대책위’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오후 4시 이후 정도에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으로 모여 달라는 호소가 올라와 있다. 내일은 전공 퀴즈 날인데, 종욱은 잠시 멍하니 도서관을 바라보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40분 여 버스를 탄 끝에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종욱은 민규에게 전화를 건다.

“선배 어디예요?”

“오전에 비가 와서 분향실을 열어줬어. 우리 다 거기 있어. 영장 발부 소식은 아직 없다.”

분향실로 향하는 길, 오가는 사람마다 가슴에 노란 세월호 리본을 매달고 지나친다. 그 리본을 보니 가을 별 아래 노랗게 익어가는 밀이 떠오른다. 백남기 농민은 정부가 수매를 멈춘 우리 밀을 지키기 위해 밀밭을 가꿨었다. 작년 11월 어느 언론사 기사에서 본

보성의 밀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오후 일곱 시. 가장 안쪽의 14호 분향실에 아는 얼굴들이 모여 있다. 종욱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그들 곁으로 다가간다.

“뉴데일리에 올라온 성신여대 학생 칼럼 읽어봤어?”

종욱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바로 알아듣는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학생이 9월 26일 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은 “전태일과 미선이·효순이, 세월호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시체팔이’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었다. 종욱은 기사를 읽으며 어려운 영어로 점철된 토익 지문을 읽을 때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체팔이.” 그들의 이름 뒤에 왜 자리하고 있는지 모를 그 단어를 혀를 굴려 발음해 보는 종욱의 표정이 황망하다.

시간이 흐른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윽고 부검영장에 관한 주제로 옮겨 갔다. 법원이 오늘 중에는 부검영장을 발부한다지만, 이것이 언제 발부될 지는 기약 없이 요원했다.

오후 아홉 시.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와 있던 종욱의 땀고개 사이로 민규의 님은 운동화가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뭘 그런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아냐. 산 지 얼마 안 된 거야 이거.”

그 운동화는 민규가 작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 총궐기대회에 신고 나갔던 것이라 했다. 이 날 민규는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갔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노동개혁 반대한다!” 마커로 둘러싼 플래카드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구겨졌다. 물대포에 섞인 최루액이 아스팔트 위 하얀 물보라로 일었다. 그 사이로 선배 하나가 쿵 쓰러졌다. 형! 급히 달려가 그의 뒷목을 잡아 일으키는 민규의 손에 끈적한 피가 묻어 나왔다. 서둘러 그를 구급차 쪽으로 옮겨 구급차 안에 들여놓는 순간, 예기치 않은 세찬 물줄기가 퍼부어졌다. 경찰의 물대포 조준사격은 구급차 안쪽까지 닿고 있었다. 급히 차문을 닫으며 출발하라고 소리치는 구급대원, 경찰을 향해 분노하는 시민들, 그런 그들을 민규는 귀에 물이 찬 채 음소거된 장면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민규는 그 날의 적막이 소름이 끼쳐 한동안 뉴스를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갈지 몰랐던 이 날 하루 사이에, 민규의 새 운동화는 오래 묵은 신발처럼 찢기고 닳아 버렸다고 했다.

새벽 두 시. 고개를 한참 땀구고 있는 종욱을 향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웅준이었다.

“결국 영장발부 될 것 같기는 하다는데 오늘 밤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 들어가서 자자.”

그래야겠지. 종욱은 지하로 내려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전공 책을 억지로 들여다보며 퀴즈를 준비했다. 누군가의 무너진 삶 곁에서, 종욱은 일상을 꾸역꾸역 붙잡는다.

떠난 자의 빈자리에 남은 자들이 모여들다

시간이 지나 9월 28일 오후 일곱 시. 어제 밤을 꼬박 분향소에서 보낸 종욱은 학교에 가 잠시 수업을 듣고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다. 장례식장 앞에는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 본부’라는 다소 긴 이름의 단체와 7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 집회를 열고 있었다.

종욱은 맨 뒷줄에 엄지손가락만한 촛불을 들고 서서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경찰의 부검 강제집행으로부터 백남기 농민을 지키자”는 결의를 같이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주위를 에워싼 언론사 카메라와 기자들을 보며 ‘법원이 곧 결정을 내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종욱의 얼굴에 긴장이 감돌았다. 틈 날 때 마다 핸드폰으로 ‘백남기 부검’을 검색해서 기사를 확인하다 보니 배터리가 벌써 다 닳았다. 장례식장에 가득 들어찬 사람들로 인해 콘센트를 찾지 못한 종욱은 옆 건물인 암병원의

로 나섰다. 핸드폰을 간신히 켜서 ‘백남기 대책위’ 페이스북 페이지를 확인하니, 거기엔 ‘JTBC 뉴스에서 영장발부가 됐다는 정보가 지금 들어왔다고 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종욱은 오후 여덟 시 삼십삼 분에 올라온 이 글을 보고 서둘러 짐을 챙겨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 앞에서는 백 씨의 유가족이 부검영장이 발부된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유가족의 감정이 뒤섞인 그 표정이 취재진의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떤 민망함을 느낀 종욱은 안치실 입구 쪽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

부검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장례식장에는 선묵한 긴장이 감돌았다. 이 긴장감은 장장 서너 시간 동안 팽팽하게 이어졌다.

새벽 두 시. 사람들의 바쁜 움직임이 멎어 들 무렵, 추운 공기를 못 견뎌 웅지 모르게 파듯한 기운이 흐르던 아스팔트 주차장 바닥에 달라붙어 애써 잠을 청하던 종욱은, 문득 백남기 농민의 얼굴이 그리웠다. 가방에서 검은 양말을 꺼내 갈아 신고 찾아가 그 곳, 사람들 부대끼는 낯새로 가득한 장례식장에서는 빈소만이 향긋한 꽃향기가 났다.

흰 국화의 향기. 종욱은 그동안 쉽 없이 움직였던 다리를 이곳에서 멈추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저 영정사진 앞에서 슬퍼하고 그리하는 마음만을 생각했다. 어제만 해도 빈공간이 많던 추모의 벽은 지금 노란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국가폭력으로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대가 사랑했던 이들은, 그대와 살고 싶었던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이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은 떠나간 한 사람에 대한 온전한 추모의 자리만은 아니었다. 수많은 언론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 곳에서는 무리지어 단체 활동을 하는 정당 관계자들도 있었고, 사람이 많이 모인 이 자리를 빌려 개인적인 정치적 발언을 공연하려는 여러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농민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기도 하고 혹은 그가 군사정권시절부터 유명했던 노동운동가라는 사실에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워 바라보기도 했다. 복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저마다 다양한 입장과 가치관의 대립이 한 생명에 대한 순수한 추모를 압도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지새우며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공권력의 사용에 대한 문제였다. 국가가 지니는 힘인 공권력이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을 향하게 될 때, 그 힘은 어떤 태도와 맥락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또, 그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삶이 무너지게 될 경우 공권력의 사용자인 국가와 그 책임자는 어떤 자세로 국민 앞에 서야 하는가. 적어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여러 날 밤을 함께 지새우는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동의하는 이들은 서울대학교 병원 바깥에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당장에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청운관 1층 총학생회존 앞에는 고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꾸려졌다. 벽면에 붙은 대자보에는 ‘국가폭력’, ‘공권력’, ‘국민의 생존권’과 같은 단어들이 여기 저기 적혀있다. 이 분향소를 둘러싸고도, 마치 서울대병원 그 현장에서처럼, 이를 바라보는 구성원의 다양한 시선과 언론의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고 백남기 농민의 영정사진은, 2016년 10월 지금의 시대상이 가득 담긴 날카로운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 9월 28일 대학생들이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에 반대하고 있다(사진 위). 서울캠퍼스 청운관 1층에 설치된 고 백남기 농민 추모 분향소

